

초등학생의 집단따돌림 경험 정도와 생명윤리의식과의 관계

문 미 영

중부대학교 간호학과

Relationship between Elementary School Students' Bullying Experience and Bioethics

Mi Young Moon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Joongbu University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of bully/victim experiences and bioethics of 5th and 6th graders. Participants were 326 elementary school students. **Methods:** The data was collected from 1th to 30th October, 2014 in G City.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d Scheffé post-hoc analysis by SPSS 18.0. **Results:** First, in regard to bioethics, significant factors were liking for growing plants ($p < .001$), emotions after killing insects ($p < .001$) and the number of friends ($p = .003$). In regard to bullying experiences, significant factors were gender ($p = .021$), religion ($p = .026$), participation in religious activity ($p = .019$), liking for growing plants ($p = .009$), insect killing experience ($p = .009$). The bioethics score of the victim group (2.70 point) were higher than the bully group (2.49 point). The relationship between bully/victim experiences and bioethics was negative. The factors affecting bioethics were liking for growing plants ($\beta = -.159$, $p = .004$), the number of friends ($\beta = .124$, $p = .030$), experiences of being bullied ($\beta = .352$, $p < .001$), emotions after killing insects ($\beta = -.135$, $p = .011$). **Conclusion:** Therefor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required to develop rich learning content and a variety of teaching and learning models for bioethics. Efficient bioethics program would help elementary school students have a higher bioethics awareness. The entire society and families should wake up to the evil effects of school bullying and make concerted efforts to root it out with a sense of responsibility.

Key Words: Bioethics, Bullying, Students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아동기의 성장기는 다양한 인간관계를 습득해나가는 시기이고 이 시기에 경험하는 인간관계의 특성이 각자의 인성형성 뿐만 아니라, 인생의 전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더욱이 부모보다 더 중요한 관계대상

이 되는 또래 집단은 성장기 아동들에게 정서적 기반이자 활동무대이기도 하다. 특히 아동 초기에는 또래집단에 소속되기를 원하고 그들과의 관계에 열광하며, 그 안에서의 인정을 통해 심리적 안정감과 자존감을 키워 나가기도 한다(Jung, 2009).

학령기에 형성된 또래집단과의 관계는 사회적 기술의 시작이며 인간의 전 생애에 걸쳐 사회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초등학생은 학교라는 작은 울타리에서 사회관계를 처음

Corresponding author: Mi Young Moon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Joongbu University, 101 Daehangro, Chubu-myeon, Geumsan 312-702, Korea.
Tel: +82-41-750-6226, Fax: +82-41-750-6416, E-mail: mmy@joongbu.ac.kr

Received: Jul 17, 2015 / Revised: Aug 21, 2015 / Accepted: Aug 23, 2015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배우게 되는 것이다. 학령기의 집단따돌림 피해 경험은 부정적인 또래관계가 형성되어 나아가 사회에서 대인관계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자살충동 등의 문제가 발생되기도 한다(Ha, 2013).

학교폭력이란 일종의 반사회적인 행동으로, 학교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폭력을 의미하며(Kang & Lee, 2014), 학생들이 경험하는 폭력의 유형은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사이버 괴롭힘 등이 있다. 집단따돌림은 왕따, 따돌림, 괴롭힘, 이지메 등으로 선행연구에서 사용되고 있고 매스컴, 신문에서도 이러한 용어들이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Hwang, 2014), 본 연구에서는 집단따돌림이라는 용어로 표현하였다. 한국교육개발원(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KEDI], 2013)에 의하면 2013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서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7만7천명으로 피해 응답률이 1.9%로 나타났다. 학교 별 피해사례에서 초등학교가 차지하는 비율이 3.8%, 중학교 2.4%, 고등학교 0.9% 순으로 학교 급이 낮을수록 피해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의 집단따돌림은 학교폭력 피해유형 중 16.6%를 차지하여 중·고등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집단따돌림 발생 비율이 높은 것을 보였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Youth Violence Prevention Foundation [YVPF], 2013)에 의하면 2013년 전국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첫 경험 시기가 중·고등학교에 비해 초등학교가 78.3%를 차지하였으며, 학교 폭력 유형별 심각성 인식에서 집단따돌림이 24.4%로 다른 유형에 비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따돌림, 폭력, 타인에 대한 배려 부족 등의 현상으로 인해 생명위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Kim, 2008). 생명위기 현상은 생명의 존엄성 상실로 인한 인간이 직접적으로 겪게 되는 생명의 위기와 의학기술이나 생명공학의 발전이 가져올 간접적인 생명의 위기현상으로 나눌 수 있다(Yun, 2007). 10대 청소년들의 범죄, 가출, 원조 교제 등 청소년들의 각종 비행과 탈선이 증가하고 있으며 생명위기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인간의 생명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일반적인 경외심과 존경심이 약화되어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정보화 시대에 인류는 물질적인 풍요와 편리함을 누리지만 도덕적 가치관의 혼란으로 인해 인간의 생명과 가치보다 돈과 물질을 중시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등의 생명위기를 유발하는 행위들이 어린 아동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다(Lee, 2012). 초등학교의 집단따돌림을 주도하는 학생의 특성을 파악한 결과 타인을 괴롭히거나 따돌림으로써 쾌감을 얻거나 고통에 무감각하여 이들에게 도덕성, 사회성 등

의 지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Lee, Kim, & Ahn, 2001). Kim 등(2015)은 국외에서 bullying이라고 불리는 것을 또래 괴롭힘이라는 용어로 표현하여 초등학교의 생명존중과 또래 괴롭힘 정도의 파악에서 생명존중정도는 또래 괴롭힘 정도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생명공학기술의 적용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인간의 존엄성 훼손, 생명과피 등의 생명위기 현상이 사회문제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과학적 지식과 윤리학의 영역 간에 내재하는 가치관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건강이나 생물학과 관련된 맥락에서 일어나는 의사결정의 도덕적 차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생명윤리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Kim, 2010) 생명을 대하는 태도와 존중하는 가치관의 형성은 초등학교 시기에 가장 필요함을 강조하였다(Park, Park, Cho, Soh, & Kim, 2005).

이에 본 연구자는 일 지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집단따돌림의 가해와 피해 경험정도를 파악하고 생명윤리의식과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초등학교 현장에서 바람직한 생명윤리관 확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하게 되었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초등학교의 집단따돌림 가해와 피해 경험 정도에 따른 생명윤리의식 정도를 파악하고 그들 상호간의 관계를 조사한 서술적 상관관계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일개 도시에 소재하는 4개교 초등학교 5, 6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불성실한 답변 18명의 자료를 제외한 326명의 설문지를 최종분석 하였다. 설문지는 연구참여에 서면 동의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초등학교 고학년 때 집단따돌림 피해 경험이 많을수록 무경험 집단이나 초기피해 집단에 비해 ‘피해 지속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다는 선행연구결과(Kwon, 2011)와 국내 집단따돌림 관련연구 경향분석(Chung, Chung, Kim, & Park, 2008)에 의하면 주 연구대상은 초등학교 고학년이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의 정신건강 실태조사(Ahn, Jung, Kim, Seok, & Lee, 2008)에서도 성별의 차이는 없었으나 저

학년보다 고학년 학생이 자존감과 가족결속력이 낮고 학업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것을 보고하여 집단따돌림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상자를 고학년으로 설정하였다. 설문지의 내용이 초등학교 5학년 이상의 수준에서 인식이 가능하여 초등학교 5, 6학년 남·녀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 수 선정은 G*Power 3.1 analysis software를 이용하여 medium effect size 0.3, power 0.95로 계산하였을 때 134명으로 요구되어 본 연구대상자 수는 필요한 표본 수를 충족하였다.

3. 연구도구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선행연구를 토대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 학년, 종교, 매달의 종교 참여 활동, 형제·자매 수, 부모 직업 유무, 애완동물 유무, 친한 친구 수, 식물키우기 좋아함, 가족여행의 좋아함, 작은 곤충 죽인 경험, 작은 곤충 죽인 후의 감정의 12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2) 집단따돌림

한 학생이 집단에 속한 구성원들의 암묵적인 동의 및 참여를 포함하여 여러 명에 의해 반복적, 지속적으로 신체적, 언어적, 심리적인 공격을 받는 일체의 행위(Chang, 2002)로써,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집단따돌림의 가해와 피해 경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Choi (1999)가 제작한 집단따돌림 가해 경험과 피해 경험 검사 문항을 사용하였다.

설문의 구성은 소외형, 언어형, 신체형으로 구분하여 각각 5문항씩 가해항목 15문항, 피해항목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1년(2013. 9. 30~2014. 9. 30) 동안의 집단따돌림 경험에 대해 조사하였다. 집단따돌림 가해와 피해 척도는 각 문항 당 ‘전혀 없었다’는 0점, ‘한번 또는 두번’은 1점, ‘가끔씩’은 2점,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3점, ‘일주일에 여러 번’은 4점을 배점하여 0~4점의 점수범위를 두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집단따돌림의 가해와 피해를 경험한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Choi (1999)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는 .840이었으며 본 연구의 가해 경험 Cronbach's α 는 .852이고 피해경험의 Cronbach's α 는 .854이다.

3) 생명윤리의식

의학과 생물학 및 기타영역에서의 인간생명에 대한 간접행위들이 내포한 윤리성과 비윤리성에 대한 양심판단의 정당성

과 확실성으로서 정의된다(Boeckle, 1968). 본 연구에서는 Lee (2012)가 사용한 설문지를 연구내용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간호학과 교수 2인, 초등교사 1인, 보건교사 2인, 초등학생 10인으로 부터 검토 받았다. 검토결과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의 해석 기재와 글자체 크기 조절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생명윤리의식은 하부영역인 생명윤리의 인식, 생명존중윤리, 생명의료윤리, 생명공학윤리 개념으로 나누게 된다. 설문지는 23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생명윤리에 대한 관심 4문항, 생명존중윤리 10문항, 생명의료윤리 5문항, 생명공학 윤리 4문항의 4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도구는 Likert식 5단계 평정척도 방식으로 되어 있으며 ‘매우 그렇다’는 5점,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씩 계산하였다. 부정형 질문은 역배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생명윤리 의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Lee (2012)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는 .785였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38이다.

4.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14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되었으며, 학생 수와 경제적 환경이 비슷한 지역의 4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였다. 각 초등학교의 기관장에게 허락을 받은 후 보건교사를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후 자료수집을 요청하였다. 자료수집자인 각 학교보건교사 간 조사편차를 줄이기 위해 설문지의 용어정의, 설문지 내용의 질문과 답변 등의 설문지 작성 과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각 학교의 반 배정은 5학년, 6학년 일개 반을 같은 반명으로 무작위 선출하도록 하였다. 담당 학급의 담임 교사에게 설문지의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였다. 보건교사가 대상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기 위하여 설문지 작성 전 연구의 목적과 연구방법 등이 제시된 설문지에 참여를 원할 경우 의사를 존중하여 강요하지 않고 스스로 동의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연구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서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되며 불이익이 없음을 명시하여 개인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연구참여로 인한 장·단점, 대상자의 익명성과 비밀유지 및 컴퓨터 파일에는 대상자 고유번호만 부여하며 신원에 관한 모든 정보는 삭제됨을 알려 주었다. 각 학교의 보건교사가 기재 요령을 설명한 후 설문지를 배포하여 스스로 기록하게 하였다. 소요된 시간은 평균 1인당 20분 정도이며, 설문지를 모두 작성한 학생은 직접 설문지를 보건교사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PASW 18.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명윤리의식 정도 및 생명윤리의식의 하부영역과 집단따돌림 경험정도 및 집단따돌림 가해와 피해경험은 평균과 표준편차, t-test, ANOVA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집단따돌림 유형에 따른 생명윤리의식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 t-test로 비교하였으며 사후 분석으로 Scheffé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집단따돌림 가해 및 피해 경험과 생명윤리의식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고 생명윤리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선형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성별은 여학생이 48.5%이고, 학년별에서 5학년이 76.7%로 나타났다. 종교에서 무교가 50.6%로 가장 많으며 기독교가 22.7%로 나타났다. 매달마다의 종교 활동 참여에서는 거의 참여하지 않는 학생이 64.4%이고 4~6회가 12.3%를 나타났다. 본인을 제외한 형제·자매의 수에서 1명인 경우가 62.9%, 2명이 22.7%로 나타났고, 대상자의 75.2%가 반려동물은 없었다. 대상자의 55%가 식물키우기를 좋아하였고, 93.6%가 가족여행가는 것을 좋아하였다. 작은 곤충 죽인 경험이 87%가 있었고, 죽인 후의 감정이 슬프다 35.6%, 슬프지 않다 34%, 기타의 내용으로 미안한 감정이 30%로 나타났고, 맞벌이 부모가 66.3%로 나타났다(Table 1).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명윤리의식과 생명윤리의식의 하부영역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명윤리의식 결과를 알아보면, 식물키우기를 좋아함($p < .001$), 작은 곤충 죽인 후 감정($p < .001$), 친한 친구 수($p = .003$)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은 곤충 죽인 후의 감정에서는 '슬프다'(4.0±0.29)가 '슬프지 않다'(3.8±0.36)보다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명윤리의식 하부영역을 세

부적으로 알아보면, 생명윤리관심 영역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것은 작은 곤충 죽인 후의 감정($p < .001$), 반려동물($p = .021$), 식물키우기를 좋아함($p = .012$)로 나타났으며 작은 곤충 죽인 후의 감정에서는 '슬프다'(3.6±0.66)가 '슬프지 않다'(3.2±0.60)보다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존중윤리에서 식물키우기를 좋아함($p < .001$), 작은 곤충 죽인 후의 감정($p < .001$), 친한 친구 수($p = .034$)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작은 곤충 죽인 후의 감정에서는 '슬프다'(4.1±0.38)가 '슬프지 않다'(3.9±0.46)보다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의료윤리에서는 종교 활동 참여($p = .043$)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생명공학윤리에서는 반려동물($p = .020$), 작은 곤충 죽인 경험($p = .041$)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집단따돌림의 가해와 피해 경험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집단 따돌림 경험에서는 성별($p = .021$), 종교($p = .026$), 종교활동 참여($p = .019$), 식물키우기를 좋아함($p = .009$), 작은 곤충 죽인 후 감정($p = .009$)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Table 2).

집단따돌림의 가해 경험의 결과를 알아보면, 소외형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것은 작은 곤충 죽인 경험($p = .002$), 작은 곤충 죽인 후의 감정($p = .002$), 언어형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것은 성별($p < .001$), 작은 곤충 죽인 경험($p = .003$)이며, 신체형에서 성별($p < .001$), 종교활동 참여($p = .001$), 식물키우기를 좋아함($p = .037$), 작은 곤충 죽인 경험($p = .037$)으로 나타났다. 종교활동 참여 정도는 1~2회(1.3±0.49)가 '참여하지 않는다'(1.1±0.1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따돌림 피해 경험 정도에서, 소외형에서 친한 친구 수($p < .001$)이고 언어형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것은 종교($p = .034$), 친한 친구 수($p = .003$)이며, 신체형에서 성별($p = .001$), 종교활동 참여($p < .001$)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종교활동 참여에서 매달 1~2회 참여(1.2±0.44)가 4~6회 참여(1.0±0.19)보다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4. 대상자의 집단따돌림 유형에 따른 생명윤리의식

대상자의 집단따돌림 가해 유형에 따른 생명윤리의식 정도는, 소외형 2.19점, 언어형 2.48점, 신체형 2.81점으로 유형별

Table 1. The Comparison of Lower Region of Bioethics and Bioethics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326)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Bioethics		Lower region of bioethics							
			M±SD	t or F (p)	Interesting bioethics M±SD	t or F (p)	Life-respecting ethics		Biomedical ethics		Life engineering ethics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Gender	Male	168 (51.5)	3.9±0.37	0.597	3.4±0.68	1.337	4.0±0.47	1.011	4.1±0.67	1.192	3.7±0.52	0.429
	Female	158 (48.5)	3.9±0.30	(.551)	3.5±0.62	(.182)	4.1±0.37	(.313)	4.1±0.66	(.234)	3.7±0.45	(.668)
Grade	5th	250 (76.7)	3.9±0.34	0.443	3.5±0.67	0.482	4.0±0.43	0.474	4.1±0.68	0.568	3.7±0.49	0.411
	6th	76 (23.3)	3.9±0.32	(.658)	3.4±0.59	(.630)	4.1±0.40	(.636)	4.1±0.60	(.571)	3.8±0.48	(.682)
Religion	Protestant	74 (22.7)	3.9±0.31	0.348	3.4±0.65	0.583	4.0±0.38	1.010	4.1±0.67	0.040	3.7±0.46	0.606
	Catholic	25 (7.7)	3.9±0.36	(.791)	3.5±0.55	(.626)	4.1±0.39	(.388)	4.1±0.73	(.989)	3.6±0.43	(.612)
	Buddhist	62 (19.0)	3.9±0.33		3.6±0.74		4.1±0.47		4.1±0.73		3.7±0.48	
	None	165 (50.6)	3.9±0.35		3.5±0.63		4.0±0.43		4.1±0.64		3.8±0.52	
Participation in religious activity (monthly)	1~2 times	28 (8.6)	3.8±0.36	1.943	3.5±0.70	0.886	4.0±0.44	0.774	3.9±0.83	2.494	3.7±0.50	1.789
	3 times	24 (7.4)	4.0±0.31	(.103)	3.4±0.70	(.472)	4.1±0.47	(.543)	4.4±0.61	(.043)	3.9±0.41	(.131)
	4~6 times	40 (12.3)	3.8±0.27		3.3±0.62		4.0±0.39		4.0±0.60		3.6±0.44	
	>7 times	24 (7.4)	4.0±0.35		3.6±0.66		4.2±0.36		4.2±0.73		3.9±0.45	
	None	210 (64.4)	3.9±0.35		3.5±0.64		4.0±0.43		4.1±0.64		3.7±0.50	
Brothers and sisters member (except yourself)	0 person	36 (11.0)	3.9±0.37	0.408	3.5±0.53	0.333	4.0±0.41	0.430	4.0±0.79	1.222	3.8±0.44	0.943
	1 person	205 (62.9)	3.9±0.34	(.747)	3.5±0.67	(.802)	4.0±0.43	(.732)	4.1±0.66	(.302)	3.7±0.52	(.420)
	2 person	74 (22.7)	3.9±0.31		3.5±0.62		4.1±0.41		4.2±0.58		3.7±0.43	
	>3 person	10 (3.1)	4.0±0.38		3.4±0.83		4.2±0.48		4.3±0.69		3.6±0.26	
Parents occupation	Dual-income	216 (66.3)	3.9±0.33	0.145	3.5±0.62	0.445	4.1±0.42	0.970	4.1±0.67	0.234	3.7±0.47	1.692
	Single	110 (33.7)	3.9±0.36	(.885)	3.5±0.70	(.657)	4.0±0.43	(.333)	4.1±0.66	(.815)	3.8±0.52	(.092)
Growing pet animals	Yes	81 (24.8)	3.8±0.39	1.880	3.3±0.75	2.328	4.0±0.48	0.811	4.1±0.63	0.168	3.6±0.56	2.338
	No	245 (75.2)	3.9±0.32	(.061)	3.5±0.61	(.021)	4.0±0.42	(.418)	4.1±0.68	(.866)	3.8±0.46	(.020)
Liking the plants raising	Yes	181 (55.5)	4.0±0.33	3.557	3.6±0.71	2.533	4.1±0.42	3.737	4.1±0.64	1.271	3.7±0.48	0.450
	No	145 (44.5)	3.8±0.34	(<.001)	3.4±0.55	(.012)	3.9±0.42	(<.001)	4.1±0.70	(.205)	3.7±0.49	(.653)
Liking the family trip	Yes	305 (93.6)	3.9±0.34	0.275	3.5±0.66	1.001	4.0±0.42	0.137	4.1±0.66	0.752	3.7±0.49	0.743
	No	21 (6.4)	3.9±0.35	(.784)	3.3±0.56	(.318)	4.0±0.47	(.891)	4.2±0.75	(.452)	3.7±0.48	(.458)
Small insect killing experience	Yes	284 (87.1)	3.9±0.35	0.404	3.5±0.66	0.883	4.0±0.44	0.240	4.1±0.66	0.637	3.7±0.49	2.047
	No	42 (12.9)	3.9±0.39	(.687)	3.6±0.62	(.378)	4.1±0.34	(.810)	4.09±0.69	(.524)	3.9±0.48	(.041)
Emotions after killing insects [†]	Sad ^a	116 (35.6)	4.0±0.29	9.011	3.6±0.66	13.796	4.1±0.38	8.577	4.2±0.61	2.123	3.8±0.50	0.299
	Not sad ^b	111 (34.0)	3.8±0.36	(<.001)	3.2±0.60	(<.001)	3.9±0.46	(<.001)	4.1±0.66	(.121)	3.7±0.52	(.741)
	Sorry ^c	99 (30.4)	3.9±0.34	a>b	3.6±0.65	a, c>b	4.1±0.40	a, c>b	4.0±0.73		3.7±0.44	
Friend numbers [†] (person)	0~1 ^a	6 (1.8)	3.7±0.49	4.709	3.2±0.58	1.347	3.9±0.52	2.928	4.1±0.10	2.485	3.4±0.53	1.174
	2~3 ^b	37 (11.3)	4.0±0.31	(.003)	3.5±0.59	(.259)	4.1±0.43	(.034)	4.2±0.57	(.061)	3.8±0.51	(.320)
	4~5 ^c	63 (19.3)	3.8±0.35	c>d	3.3±0.61		3.9±0.44		3.9±0.73		3.7±0.42	
	>6 ^d	220 (67.5)	3.9±0.33		3.5±0.67		4.1±0.41		4.2±0.64		3.8±0.50	

*Scheffé post hoc analysis; $p < .05$.

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 < .001$), 대상자의 집단 따돌림 피해 유형에 따른 생명윤리의식 정도는 소외형 2.64 점, 언어형 2.61점, 신체형 2.86점으로 유형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집단 따돌림의 전체 가해점수가 2.49점이고 전체 피해점수가 2.70점으로 생명윤리의식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5. 대상자의 집단따돌림 가해 및 피해 경험과 생명윤리의식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집단따돌림 가해 및 피해 경험과 생명윤리의식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집단따돌림 가해 경험($r = -.161, p = .004$), 집단따돌림 피해 경험($r = -.361, p < .001$)이 부적 상관

Table 2. The Comparison of Lower Region of Bullying Experience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326)

Characteristics	Categories	Bullying experience		Lower region of bullying experience						Lower region of experience of being bullied					
				Alienation type		Language type		Physical damage type		Alienation type		Language type		Physical damage type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Gender	Male	2,7±0,71	2,320	1,7±0,66	0,681	1,6±0,63	4,825	1,1±0,30	3,844	1,2±0,47	1,485	1,3±0,57	1,203	1,1±0,25	3,397
	Female	2,6±0,56	(,021)	1,7±0,58	(,496)	1,3±0,42	(<,001)	1,0±0,16	(<,001)	1,3±0,62	(,138)	1,3±0,54	(,230)	1,0±0,13	(,001)
Grade	5th	2,7±0,66	0,511	1,7±0,65	1,339	1,4±0,58	1,156	1,1±0,26	0,859	1,3±0,55	0,244	1,3±0,51	1,644	1,0±0,22	0,413
	6th	2,6±0,61	(,610)	1,6±0,50	(,181)	1,4±0,48	(,249)	1,1±0,20	(,391)	1,2±0,55	(,808)	1,4±0,68	(,101)	1,0±0,18	(,680)
Religion [†]	Protestant ^d	2,8±0,78	3,134	1,8±0,57	1,046	1,5±0,56	2,631	1,1±0,30	4,082	1,3±0,70	0,441	1,1±0,60	2,932	1,1±0,21	2,189
	Catholic ^b	2,6±0,65	(,026)	1,6±0,59	(,372)	1,4±0,58	(,049)	1,1±0,13	(,007)	1,3±0,52	(,724)	1,4±0,64	(,034)	1,0±0,14	(,089)
	Buddhist ^c	2,8±0,73	a, c>	1,7±0,61		1,5±0,65		1,2±0,34	c>d	1,3±0,52		1,3±0,62	b>d	1,1±0,32	
	None ^d	2,6±0,56	b, d	1,7±0,65		1,3±0,50		1,1±0,19		1,2±0,48		1,2±0,48		1,0±0,15	
Participation in religious activity (monthly) [†]	1~2 times ^d	2,9±0,97	2,981	1,8±0,78	1,125	1,6±0,62	2,434	1,3±0,49	4,976	1,3±0,62	1,847	1,3±0,62	0,595	1,2±0,44	5,280
	3 times ^b	2,6±0,63	(,019)	1,6±0,58	(,345)	1,4±0,63	(,047)	1,1±0,19	(,001)	1,3±0,63	(,120)	1,3±0,63	(,667)	1,1±0,23	(<,001)
	4~6 times ^c	2,9±0,85		1,9±0,67		1,6±0,68		1,2±0,37	a>e	1,4±0,64		1,4±0,64		1,0±0,19	a>c
	>7 times ^d	2,7±0,62		1,7±0,50		1,5±0,63		1,1±0,20		1,4±0,55		1,4±0,55		1,1±0,21	
	None ^e	2,6±0,54		1,7±0,60		1,4±0,49		1,1±0,17		1,2±0,43		1,3±0,52		1,0±0,14	
Brothers and sisters member (except yourself)	0 person	2,5±0,50	1,597	1,6±0,45	1,243	1,3±0,42	0,956	1,0±0,13	1,425	1,1±0,28	1,964	1,3±0,59	1,062	1,1±0,19	0,293
	1 person	2,7±0,65	(,190)	1,7±0,65	(,294)	1,4±0,54	(,414)	1,1±0,27	(,235)	1,3±0,60	(,119)	1,3±0,52	(,365)	1,0±0,22	(,830)
	2 person	2,6±0,64		1,7±0,56		1,5±0,63		1,1±0,20		1,2±0,45		1,3±0,60		1,0±0,18	
	>3 person	3,0±1,12		1,9±0,86		1,6±0,72		1,2±0,47		1,5±0,73		1,6±0,78		1,1±0,25	
Parents occupation	Dual-income	2,6±0,60	0,583	1,7±0,60	0,052	1,4±0,54	0,271	1,1±0,22	0,412	1,3±0,56	0,426	1,3±0,50	1,261	1,0±0,17	1,404
	Single	2,7±0,74	(,560)	1,7±0,67	(,959)	1,4±0,58	(,787)	1,1±0,30	(,680)	1,3±0,53	(,671)	1,3±0,64	(,208)	1,1±0,27	(,161)
Growing pet animals	Yes	2,7±0,66	1,452	1,8±0,62	1,883	1,5±0,65	1,244	1,1±0,33	1,573	1,3±0,59	0,573	1,3±0,52	0,097	1,1±0,24	1,049
	No	2,6±0,65	(,147)	1,7±0,62	(,061)	1,4±0,52	(,214)	1,1±0,22	(,117)	1,3±0,53	(,567)	1,3±0,57	(,923)	1,0±0,19	(,295)
Liking the plants raising	Yes	2,6±0,59	2,614	1,7±0,58	2,027	1,4±0,50	2,481	1,1±0,23	2,090	1,2±0,46	2,148	1,3±0,53	0,973	1,0±0,22	1,035
	No	2,8±0,71	(,009)	1,8±0,66	(,044)	1,5±0,60	(,014)	1,1±0,27	(,037)	1,3±0,64	(,032)	1,3±0,58	(,331)	1,1±0,18	(,302)
Liking the family trip	Yes	2,6±0,63	0,716	1,7±0,60	1,715	1,4±0,55	0,832	1,1±0,24	0,642	1,3±0,55	0,089	1,3±0,55	0,387	1,0±0,21	0,102
	No	2,7±0,86	(,475)	1,9±0,87	(,087)	1,5±0,65	(,406)	1,1±0,35	(,521)	1,3±0,55	(,929)	1,3±0,62	(,699)	1,0±0,16	(,919)
Small insect killing experience	Yes	2,7±0,66	2,612	1,8±0,63	3,188	1,5±0,57	2,986	1,1±0,26	1,835	1,3±0,55	0,352	1,3±0,56	1,709	1,1±0,21	1,268
	No	2,4±0,48	(,009)	1,4±0,46	(,002)	1,2±0,34	(,003)	1,0±0,12	(,037)	1,3±0,55	(,725)	1,2±0,51	(,088)	1,0±0,17	(,206)
Emotions after killing insects	Sad	2,6±0,64	2,431	1,6±0,57	6,263	1,3±0,50	3,038	1,1±0,22	0,863	1,3±0,66	2,057	1,3±0,64	1,253	1,1±0,25	1,122
	Not sad	2,8±0,68	(,090)	1,9±0,66	(,002)	1,5±0,42	(,049)	1,1±0,28	(,423)	1,2±0,45	(,129)	1,3±0,56	(,287)	1,1±0,20	(,327)
	Sorry	2,6±0,61		1,7±0,60		1,4±0,52		1,1±0,25		1,2±0,50		1,2±0,43		1,0±0,15	
Friend numbers (person) [†]	0~1 ^a	3,2±0,63	2,279	1,6±0,53	0,203	1,1±0,17	1,053	1,1±0,17	0,134	2,6±0,96	23,113	2,1±1,14	4,657	1,2±0,41	1,056
	2~3 ^b	2,7±0,77	(,079)	1,7±0,59	(,894)	1,4±0,58	(,369)	1,4±0,27	(,940)	1,6±0,64	(<,001)	1,3±0,57	(,003)	1,1±0,21	(,368)
	4~5 ^c	2,7±0,68		1,7±0,63		1,5±0,59		1,1±0,18		1,3±0,59	a, b,	1,3±0,51	a>b, c, d	1,1±0,18	
	>6 ^d	2,6±0,62		1,7±0,63		1,4±0,55		1,1±0,27		1,2±0,55	c>d	1,3±0,53		1,0±0,21	

[†] Scheffé post hoc analysis; *p* < .05.

Table 3. The Comparison of Bioethics according to Bullying Experience (N=326)

Variables	Categories	Bioethics		
		M±SD	t	<i>p</i>
Bullying experience	Alienation type	2,1±0,80	75,098	<,001
	Language type	2,4±0,72		
	Physical damage type	2,8±0,45		
	Sub-total	2,4±0,60		
Being bullied experience	Alienation type	2,6±0,68	90,552	<,001
	Language type	2,6±0,69		
	Physical damage type	2,8±0,42		
	Sub-total	2,7±0,54		

관계를 나타냈다 (Table 4).

6. 생명윤리의식에 미치는 영향요인

대상자의 생명윤리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생명윤리의식을 종속변수로 하여 일반적 특성, 집단따돌림 가해경험과 피해 경험의 모든 변수를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1차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케이스별 진단 (casewise diagnostics)에서 제시하고 있는 3명의 대상자를 제거한 후, 323명의 대상자에 대해 stepwise (단계적 선택)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결과에서 초등학생의 생명윤리의식에 유의한 설명력을 갖는 변수는 최종적으로 식물키우기를 좋아함($\beta = -.159, p = .004$), 작은 곤충 죽인 후의 감정($\beta = -.135, p = .011$), 친한 친구 수($\beta = .124, p = .030$), 집단따돌림 피해

경험($\beta = .352, p < .001$)으로 이들 요인의 설명력은 총 14.1%였다. 그러므로 초등학생의 생명윤리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은 곤충 죽인 후 감정, 식물키우기를 좋아함, 친한 친구 수, 집단따돌림 피해 경험이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식물키우기를 좋아하지 않을수록, 작은 곤충 죽인 후의 부정적인 감정, 친한 친구 수가 많을수록, 집단따돌림 피해경험이 많을수록 생명윤리의식이 높음을 알 수 있다 (Table 5).

Table 4. Correlation between the Bullying Experience and Bioethics (N=326)

Variables	Experience of being bullied		Bullying experience	
	r	p	r	p
Bioethics	-.316	< .001	-.161	.004

논 의

최근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원인 규명 및 실태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이것은 무엇보다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폭력이 과거에 비해 다양해지며 지속적인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규모 또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초등학생의 경우 학교폭력 유 경험 비율이 가장 높을 뿐 아니라 학교폭력의 유형 중 집단 따돌림의 수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 초등학생의 집단따돌림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Ha, 2013).

인간의 생명의 소중함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소중하게 지켜오고 있으나 최근 초등 학교에서 집단따돌림, 폭력, 타인에 대한 배려 부족 등의 생명

Table 5. Factors Affecting the Bioethics

(N=323)

Variables	B	β	t	p
(Constant)	4.506		14.050	< .001
Gender	-0.052	-.084	-1.515	.132
Grade	-0.028	-.037	-0.705	.454
Religion	0.008	.032	0.413	.724
Participation in religious activity (monthly)	-0.016	-.070	-0.896	.396
Brothers and sisters member (except yourself)	0.028	.059	1.114	.239
Parents occupation	0.012	.018	0.334	.692
Growing pet animals	0.043	.039	1.096	.250
Liking the plants raising	-0.100	-.159	2.899	.004
Liking the family trip	0.046	.036	0.676	.505
Small insect killing experience	-0.080	-.086	-1.590	.103
Emotions after killing insects	-0.052	-.135	2.517	.011
Friend numbers	0.050	.124	2.190	.030
Experience of being bullied	0.298	.352	3.448	< .001

$R^2 = .429$, Adjusted $R^2 = .141$, $F = 4.306$, $p < .001$, Durbin-Watson = 1.913

위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Kim, 2008). 초등학생은 다양한 인간관계를 경험하고 인간관계를 통해 사회경험을 배우는 중요한 시기로, 이 시기에 겪게 되는 집단따돌림은 개인의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보기에는 너무 만연하고 있는 위험한 문제이다(Jung, 2009). 모든 수준의 학교에서 집단따돌림이 행해지고 있지만 특히 초등학교 수준의 집단따돌림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그것은 초등학교의 집단따돌림이 중·고등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 외에도 초등학교 시기가 갖는 인간 발달 단계상의 중요성 때문이다. 사춘기가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시작되면서, 이 시기의 심리적·신체적 발달은 다음 단계로의 성장과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Lee, 2004), 학령기에 집단따돌림으로 인한 부정적인 사회관계가 형성되지 않도록 요인을 분석하여 예방할 필요가 있다(Ha, 2013). Kim 등(2015)은 또래괴롭힘을 해결하는 기준에 사용하였던 학생과 학부모 상담 등의 방법은 미시적, 단편적이므로 자기존중 및 타인존중과 밀접한 현상이 있어 생명존중이 또래 괴롭힘 예방에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인식전환의 계기를 제공한다고 하였다. 생명윤리는 목숨·생명에 대하여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와 규범으로(Lee, 2012), 폭넓게는 생명존중보다 광의의 의미를 가진다. 기준에 이루어진 집단따돌림과 생명존중의식 관계의 연구(Kim et al., 2015)를 바탕으로 생명윤리에 대한 관심, 생명존중윤리, 생명의료윤리, 생명공학 윤리의 4개 영역을 포함하는 생명윤리의식 정도를 본 연구는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명윤리의식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변수는 식물키우기를 좋아함과 곤충 죽인 후의 감정으로 생명의 존엄성과 관련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생명의 존엄성을 인식시켜야 생명 친화적, 환경 친화적인 삶을 살 수 있으며 자연과 환경, 생명존중의식이 길러지면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시킬 수 있음을 강조하여 초등학교 학생이 식물을 재배, 관리, 탐구관찰 하여 삶에 이용하므로써 생물체를 소중히 여기고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Lee (2002)의 연구와 생태활동 교육이 전통적인 수업에 비해 생명존중의식의 신장에 효과적인 Nam (2009)의 연구결과들은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생명윤리의식이 학년별, 종교, 형제·자매 수, 부모의 직업등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생명윤리의식과 식물과의 상호작용을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으로 나누어 비교한 Lee (2002)의 연구에서도 학년별, 지역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집단따돌림 피해 경험을 알아보면, 소외형에서 식물키우기를 좋아함, 친한 친구 수가 유의

한 차이를 보였고, 신체형에서는 성별, 종교활동 참여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년, 형제관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Kim (2009)의 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였다. 집단따돌림 가해 경험에서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언어형, 신체형에서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성별에 따른 집단따돌림에 대해 비 일관적인 결과들을 제시하는 연구들 중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집단따돌림 행동을 더 많이 한다는 결과들과 일치되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Kim, 2004 ; Kim, 2009 ; Yoon, 2011).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에서 사용한 집단따돌림의 항목이 서로 다르며 남녀 차이의 결과를 직접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학년에 따라서 5, 6학년의 소외형, 언어형, 신체형에서 모두 비슷한 결과를 보여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Kim (2008)의 연구에서는 가해경험은 6학년이 3학년보다 많았고, 피해 경험은 3학년이 6학년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존의 결과와 일치하였다(Kim, 2004).

대상자의 집단따돌림 가해 유형에 따른 생명윤리의식 정도에서 집단따돌림의 전체 가해점수가 2.49점이고 전체 피해점수가 2.70점으로 집단따돌림 피해 경험 대상자의 생명윤리의식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집단따돌림 가해 경험 학생에게 올바른 생명윤리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집단따돌림의 피해자보다는 가해자의 개입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가해자의 행동패턴이 오랫동안 변하지 않고 남아있어 공격적 행위가 성장 후 가점폭력, 폭행, 그리고 문체해결기술 부족으로 인한 알코올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Lee, 2004).

대상자의 집단따돌림 가해 및 피해 경험과 생명윤리의식 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집단따돌림 가해 경험($r=-.161$, $p=.004$), 집단따돌림 피해 경험($r=-.361$, $p<.001$)이 약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집단따돌림과 생명윤리의식과의 관련성을 직접적으로 확인하지는 않았으나 초등학교 5, 6 학년을 대상으로 또래 괴롭힘과 생명존중 정도를 연구한 Kim 등(2015)의 연구에서도 생명존중 정도는 또래괴롭힘 정도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대상자의 생명존중 정도가 높을수록 ‘가해아’, ‘피해아’, ‘방관아’, ‘가해동조아’ 유형의 점수가 낮게 나타나 생명존중 정도가 직접적으로 또래괴롭힘과 관련이 있음을 보고 하였다.

초등학생의 식물가꾸기를 좋아함에 따른 생명윤리의식 정도를 비교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식물키우기를 좋아하지 않을수록 생명윤리의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159$, $p=.004$). 식물과의 상호작용은 생명윤리의식과 의미

있는 상호 관련성이 있음을 시사 하였고(Lee, 2002), 자연체험을 통한 교육은 초등학생들의 생명존중의식 함양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며 식물가꾸기를 통한 활동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식물가꾸기 만을 하는 것보다 스스로 동물을 직접 키워보면서 생물과 친화력을 스스로 체험하게 함은 가장 이상적인 것이라고 하였고(Nam, 2009), 초등학생에게 생명존중의식을 함양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살아있는 작은 동물을 직접 길러보고 한 살이 과정을 관찰, 체험해보는 활동이 살아있는 것에 대한 경이로움과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강조하였다(Nam, 2009). 그러나 본 연구는 다른 결과를 보여 추후 반복 연구가 필요하며 식물키우기의 경험에 대한 여러 측면의 질문을 개발하여 생명윤리의식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조사하는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식물을 단순히 키우는 것보다는 생명의 의미와 식물을 가꾸고 아끼는 교육내용까지 포함해야만 초등학생의 생명윤리의식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고, 책임감과 생명존중심없이 식물을 키운다면 오히려 생명을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 따라서 가정이나 사회에서의 식물과 동물과의 상호교류 체험활동을 격려하는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에게 가르쳐야 할 필수 사항으로 인식되고 학교에서 다양한 식물과 동물키우기의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초등학생은 작은 곤충 죽인 후의 부정적인 감정일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생명윤리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35, p = .011$). 본 연구결과, 작은 곤충을 죽인 경험은 대상자의 87%가 경험이 있다고 하였으며 죽인 후의 감정이 슬프다 35%, 슬프지 않다 34%, 기타의 감정으로 미안한 감정이 30%로 나타났다. 7~12세 아동은 죽음이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며 죽음의 의미를 이해하기 전에 죽은 새나 곤충, 동물 등을 통하여 죽음의 의미를 체험하고 느끼게 되어 죽음의 개념이 정확하게 성립되어 있지 않다고 하였다(Ryu & Lee, 2008). 그러나 본 연구에서 곤충 죽인 후의 감정이 슬프지는 않지만 웬지 모를 미안함의 감정이 30%로 나타났으며, 미안함의 감정을 제대로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것이 죽음의 개념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서 인지, 아니면 생명경시 풍조의 영향인지를 구별할 필요가 있으며 추후 곤충이나 작은 동물의 죽음에 대한 감정과 생명윤리의식의 관련성에 대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Lee (2012)의 초등학생의 생명윤리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생명윤리 관심과 생명존중윤리, 생명의료윤리, 생명공학윤리영역 중에서 생명존중윤리 영역이 다른 영역에 비해 다소

높지만 만족할만한 수치는 아니며 생명윤리 관련 지식이 부족하고 가치 판단력이 부족하여 초등학생의 생명존중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낮은 생명존중의 의식들이 청소년이 되면서 학교폭력과 학업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자살을 선택하고 주변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현상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하였다. 생명존중과 윤리의식은 작은 동물과 식물의 소중함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되며 초등학생에게 생명의 존중함을 강조하는 체험활동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추후 작은 곤충의 나약함과 작은 것의 아픔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판단할 수 있는 타당하고 신뢰도 높은 검사도구의 개발과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초등학생의 집단따돌림 피해경험이 많은 학생이 생명윤리의식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eta = .352, p < .001$). 집단따돌림 피해경험과 가해경험은 원인과 결과가 불분명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Hwang (2014)는 집단따돌림 가해경험에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별, 생활환경, 자아개념, 부모의 양육태도 등이 아니고 집단따돌림 피해경험과 공격성으로 나타났다. 피해경험이 있는 학생이 가해에 참여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아 집단따돌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또는 집단따돌림을 당했을 때 느꼈던 소외감이나 막막함에 대한 두려움으로 더욱 더 또래 집단 속에 몰입되어 가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집단따돌림에 대해 구체적인 질문을 할수록 피해경험의 응답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거의 모든 학교에서 집단따돌림이 보편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다. Park (2014)의 연구에서도 아동의 집단따돌림 피해 경험은 학교생활만족의 하위 요인 중 교우관계만족과 가장 높은 부적 상관을 나타냄을 통해 아동의 집단따돌림 피해 경험은 아동의 교우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Kim (2009)은 초등학생의 집단따돌림 피해경험이 자기 존중감에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가해 경험은 유의한 영향이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Jung (2009)에서 집단따돌림 피해 학생은 심리적인 상처가 크고 그에 대한 반응도 극단적일 수 있는 반면, 가해 학생은 따돌림을 가하고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 잘못을 느끼지 못하거나 자신의 행동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가해와 피해 모든 학생에게 심리적 현상을 치유함이 절실하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초등학생의 집단따돌림 피해 경험은 생명윤리의식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고 앞서의 연구결과에서 정서적인 면이나 교우관계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 다른 가해경험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되풀이하게 한다. 또한 4학년, 5학년의 따돌림 가해 유경험이 많을수록 무경험 집단보다 '초기피해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

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Kwon, 2011). 평소 상처 받았던 집단따돌림 피해 경험은 심리적인 압박감과 위축감을 가지게 하며 이러한 내재된 감정들은 나약함과 우울감으로 변하게 되어 생명윤리의식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된다. 피해 경험 대상자들의 위축된 감정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우선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방법으로는 상담이나 심리학적 치유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의료기관이 아닌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치유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된다. 일회적 과정보다는 지속적인 과정을 거쳐야 이루어지는 예를 들면, 식물키우기와 같은 친환경적 경험의 제공이나 곤충에 대한 감정이나 사랑의 표현 등이 생명윤리의식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되리라 생각된다. 집단따돌림의 경험을 분리하지 않은 하나의 개념으로 한정짓지 말고 피해경험과 가해 경험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하여 각각의 원인 분석과 예방책을 마련해야 되리라 생각한다.

초등학생의 친한 친구 수가 생명윤리의식 정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며($\beta=.124, p=.030$), Kim 등(2015)도 또래 괴롭힘과 생명존중과의 연구에서 필요한 것은 유형에 따라 가정, 교육관계 등의 환경 변인에 대한 탐색과 확인 과정임을 강조하였다. 친한 친구의 수가 많을수록 활동성이 높으며 소외감을 덜 느끼며 집단따돌림 피해 정도가 적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친구 수 보다는 성격 특성과 따돌림 영향을 알아본 Ha (2012)의 연구에서는 안정성이 낮고 활동성이 높은 성격 특성을 가진 학생은 집단따돌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집단따돌림의 경험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각각의 유형에 대한 특성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을 둘러싼 환경적 원인에 초점을 두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되며 친한 친구 수보다는 안정적인 성격을 가지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는 연구 조사의 편의상 한 지역을 정하여 대상을 임의 표집 하였으며 전체 초등학생의 자료로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집단따돌림의 발생 원인은 학교 내부의 사회적 환경과 학교 외부의 환경 등 다양한 요소가 작용하지만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집단따돌림의 경험 정도로만 한정하였기 때문에 학교 밖의 원인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못했다. 또한 자기 보고식 설문지의 조사로 행해진 연구로 인해 사소한 개인적 갈등을 개인의 주관적 느낌으로 생각하므로 실제보다 심각하게 보고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초등학생은 사춘기가 시작되는 시점이면서 사회적 인간관계의 망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집단따돌림이라는 위험한 학교 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

는 다방면적인 각도에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생명존중을 위한 방법이 거창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며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으로 넓은 범위를 포괄적으로 다루어야 함을 강조하였다(Jang, 2002). 생명을 대하는 태도와 존중하는 가치관의 형성은 초등학교 시기에 가장 필요하므로 가정이나 학교에서의 바람직한 생명윤리의식과 확고한 가치관 형성을 위한 방법은 우선 초등학생의 집단따돌림의 문제 해결과 더불어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두 가지 문제는 모두 관련성이 있으며 각각의 문제를 통합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모여서 해법을 찾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중재가 시도되어야 하며 더불어 생명윤리의식의 확립을 위한 교육과정이 계획되어야 하리라 사료된다.

결론 및 제언

학령기에 형성된 또래집단과의 관계는 사회적 기술의 시작이며 인간의 전 생애에 걸쳐 사회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13년 조사된 학교폭력의 피해조사에서 집단따돌림은 높은 순위를 차지하며 지속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함을 나타내었다. 집단따돌림은 학생들의 학업능력과 정신적인 문제 뿐 아니라 가족구성원 전체에게 상처를 주고 있으며 국가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소되지 않는 상황이다.

생명의 소중함은 인간 생명을 포함한 모든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올바른 인간이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강조되는 것이다. 최근의 생명경시 풍조와 관련하여 집단따돌림이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집단따돌림 경험정도에 따른 생명윤리의식과의 관련성을 조사하기 위한 연구로 생명윤리의식의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실시되었으며 생명윤리의식과 집단따돌림 가해 및 피해 경험 간의 상관관계에서 집단따돌림 가해 경험, 집단따돌림 피해 경험이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생명윤리의식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식물키우기를 좋아함, 작은 곤충 죽인 후의 감정, 친한 친구 수, 집단따돌림 피해 경험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참고로, 바람직한 생명윤리의식과 확고한 가치관 형성을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모여서 해법을 찾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가정별, 학교별, 지역별로 초등학생들의 생명윤리의식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과 중재가 시도되어야 하며 일관된 목표를 가지고 지속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대상을 더 확대하여 지역별, 학년별 집단따돌림

의 정도와 선행요인, 직·간접 영향 요인을 파악하는 연구를 제안한다.

둘째, 초등학생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학교, 가정이나 지역 사회에서 이행할 수 있는 맞춤형 집단따돌림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의 개발과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제안한다.

셋째, 초등학생 전체 학년별에 따른 생명윤리의식의 강화를 위한 교과 및 비교과 과정 개발과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제안한다.

REFERENCES

- Ahn, D. H., Jung, S. A., Kim, S. H., Song, W. J., & Lee, M. S. (2008). Mental health of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and related familial-social factors in health promoting school.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21*(2), 35-46.
- Boeckle, F. (1968). *Fundamental concepts of moral theology*. New York: Paulist Press, 73-74.
- Chang, J. Y. (2002). *Developing a test for discriminating the bullied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Choi, E. S. (1999). *A study of psychological factors associated with bully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gang University, Seoul.
- Chung, O. B., Chung, S. H., Kim, K. E., & Park, Y. J. (2008). A literature review of research into bullying in Korea. *The Korean Journal of the Human Development, 15*(1), 115-137.
- Ha, E. G. (2013). *Factors affecting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bully-victim experi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an's University, Seoul.
- Hwang, T. Y. (2014). *A study on the conditions of group bullying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buk National University, Cheongju.
- Jang, J. H. (2002). *The study on the education of respect for life in the curriculum of secondary educ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shin Woman's University, Seoul.
- Jung, Y. J. (2009). *A study on the effect of the group Ostracizing upon the child's self-esteem and school-environ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Seoul.
- Kang, S. Y., & Lee, K. S. (2014). An analysis on the factors for school violence family factors of perpetrators. *Journal of Police Law, 12*(1), 59-83.
- Kim, E. J. (2008).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bioethics education program in elementary school sci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 Kim, J. O. (2009). *The relationships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bully-victim experience, self-esteem and school adjus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angwon University, Changwon.
- Kim, K. H. (2004). *On the relationship of bullying in school experience with self competence perception and school adjustment in elementary school pupil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angwon University, Changwon.
- Kim, S. D. (2010). A biblical conception of the beginning of human life. *Faith & Scholarship, 15*(4), 35-56.
- Kim, S. H., Park, Y. A., Kim, S. H., Kim, H. Y., Yoo, S. Y., Baek, S. S., et al. (2015). The degree of life-respect and peer bullying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Children Health Nurse Research, 21*(1), 28-36.
- Kim, Y. S., Kih, Y. J., Noh, J. S., Park, M. S., Sohn, S. H., Suh, D. H., et al. (2001). School bullying and related psychopathology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Journal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40*(5), 876-882.
-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13). *School violence survey on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Seoul, Educational Development, September, 185, 40.
- Kwon, J. K. (2011). The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victimized experiences and changing behavior problem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34*, 96-127.
- Lee, J. K. (2002). *The interaction of elementary students with plants and their bio-ethic consciousn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Incheo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Incheon.
- Lee, K. H., Kim, Y. H., Ahn, H. M. (2001). Coping method to bullying problems and the survey data for the actual conditions of bullying at the elementary school, *Journal of Student Guidance, 27*, 1-78.
- Lee, K. M. (2012). *Perception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and students on bioethic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Seoul.
- Lee, M. J. (2004). A study on the ecosystematic variables of bullying behaviors among elementary, *Korean Journal of Clinical Social Work, 1*(1), 41-62.
- Ministry of education(2015). *2014 Survey on school violence*, Seoul. Retrieved from <http://www.moe.go.kr/web/106888/ko/board/view.do?bbsId=339&boardSeq=58717>
- Nam, Y. J. (2009). *Effects of ecological activity education on life-esteemed consciousnes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focusing on raising animals in classroom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Park, I. O., Park, J. Y., Cho, E. H., Soh, K. H., Kim, H. B. (2005). Teachers' interest and understanding of bioethics and their perception of bioethics in elementary school education. *Elementary Science Education, 24*(5), 571-582.
- Park, S. J. (2014). *The moderating effects of resili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 with bullying experiences and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Unpublished master's thesis,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Incheon.
- Ryu, M. K., & Lee, Y. J. (2008). The effects of life-respect education

- program on attitudes toward life and death of elementary school student. *Journal of Social Sciences*, 7, 47-63.
- Yoon, Y. M. (2011). Analysis on bullying tendencies among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Public Health Nursing*, 21(2), 230-240.
- Youth Violence Prevention Foundation. (2013), *School violence nationwide survey*, Seoul. Retrieved from <http://blog.naver.com/bakbht/220007023211>.
- Yun, S. A. (2007). *A study on the school adjustment and perception of school environment according to experiences suffered from school violence and parent's rearing attitud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